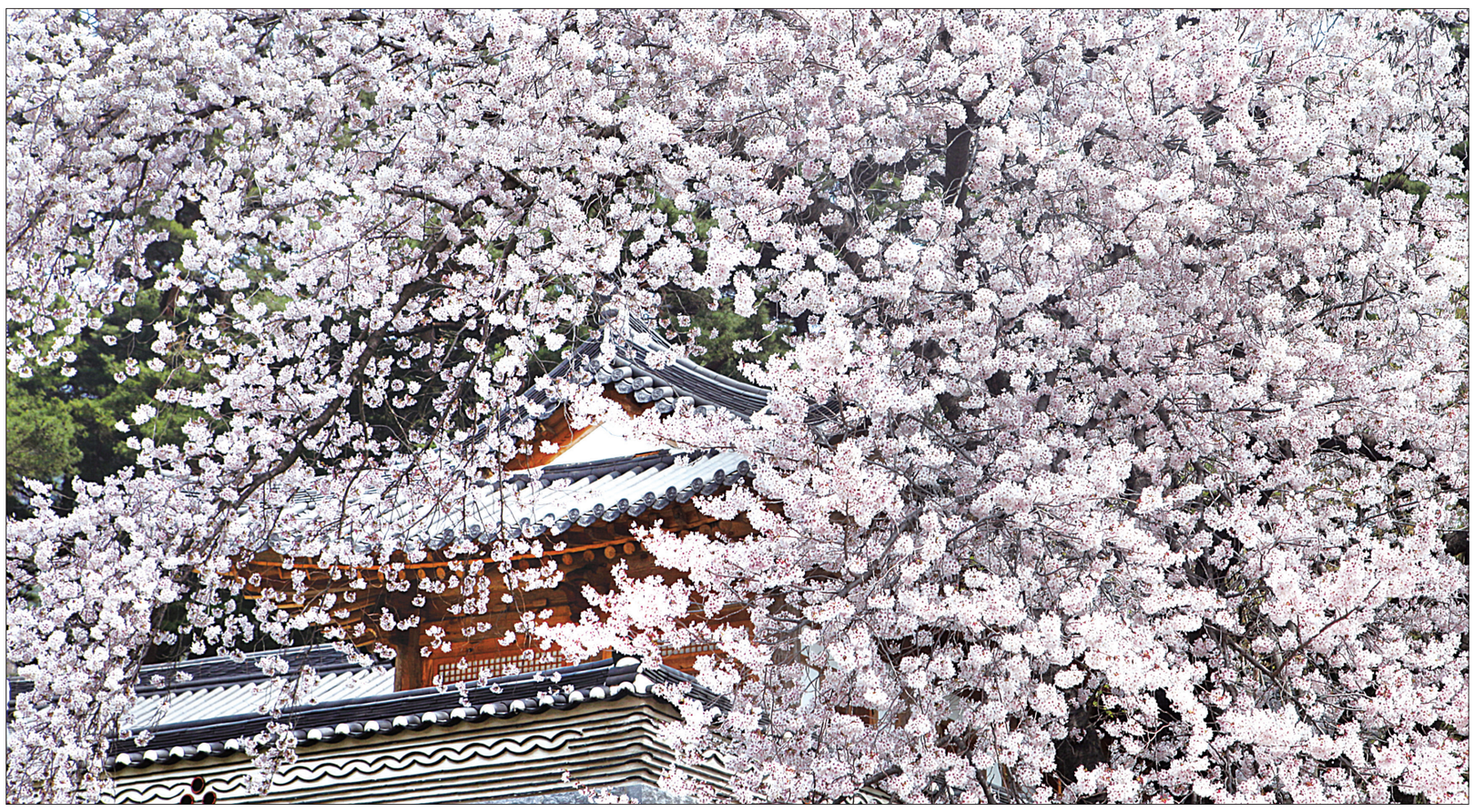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윤2월 15일) 2023년 4월 5일 수요일



봄꽃비 내리는 극락 "오늘 날씨 따뜻하고 바람도 화창하여 / 산은 층층으로 솟고 물은 잔잔히 흘러가니 / 산꽃은 미소 짓고 들새는 노래 부르니 / 손 마주잡고 태평가를 불러 보세"(경봉 스님의 '나와 주인공의 문답' 중) 봄기운이 완연하다. 3월 30일 경봉 스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통도사 극락암에는 봄의 전령 벚꽃이 만개했다. 영취산 봉우리가 비치는 극락영지(極樂影池)에는 벚꽃 잎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오고가는 대중의 눈길을 잡아끈다. 스님의 태평가가 봄꽃비와 함께 날린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 추대
원로의원 법등·동명스님 추천

조계종 중앙종회, 제227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임담 의현 대종사



법등 스님



동명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에 임담 의현 대종사가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화사 방장으로 임담 의현 대종사를 추대했다.

이에 앞서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2월 7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 후보자로 임담 의현 대종사를 선출한바 있다.

임시회에서는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할 것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할 것을 놓고 의원 간 의견 차가 있어 10분 간 정회했다. 이후 진행된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의견을 모아 가결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제2대 방장으로 추대된 임담 의현 대종사는 상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1955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2~8대 중앙종회의원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제25 · 26대 총무원장, 중앙승가대학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10월 동화사에서 종단 최대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원로의원에 법등 스님(직지사)과 동명 스님(선운사)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중앙종회 추천을 받은 원로의원 후보는 이후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추천과 2/3 동의로 선출된다. 임기는 10년이며, 중임 할 수 없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법등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 · 조계사 주지,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더프라미스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금오종합사회복지관장, 직지사 승려복지회장을 맡고 있다.

동명 스님은 봉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1973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 개운사 · 전등사 주지,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등사 회주와 전등선림 선원장, 행원문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중앙종회는 제227회 임시회 개회를 알리는 개회식을 진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7대 집행부의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중앙종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앞으로 4년간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를 기치로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요과제를 정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 교체 시기임에도 짜임새 있는 살림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해 결산안을 잘 살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백년대계본부를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본부 예산 경정안과 종책과제 집행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 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종헌종법 개정안과 각종 인사안을 진중한 토론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여 종단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화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임시회를 종단 발전의 기점으로 삼아 직면한 현실을 넘어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종회는 불기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 산하기관 · 직영사찰 ·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으며, 회기를 연장해 4월 3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결의했다.

〈임시회 결과 차기 상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암곡 마애불 입불, 기도로 원력 모은다

조계종 미래본부 3월 28일 윤달 3.7일 특별기도 입재

사부대중 100명 입불 원력 상기해 "마애불 입불, 본성 회복 불사" 21일 간 마애불서 오전 11시 기도

경주 남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미래본부는 3월 28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윤달 3.7일 특별기도'를 시작하며 입재식을 봉행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 하나로 모아졌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3월 28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윤달 3.7일 특별기도'를 시작하며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추진단장 종천 스님과 총무원 문화국장 용주 스님, 금천사 주지 지호 스님, 기도법사 단장 환풍 스님, 열암곡 기도 도감 본오 스님, 기도법사 선우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 불국사 교무국장 정수 스님을 비롯해 최상원 조계종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윤달 3.7일 특별기도'는 오는 4월 19일 조계사에서 열릴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 전에 온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원만한 불사를 위해 간절한 염원을 담는 기도정진이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공동추진단장 종천 스님은 인사말에서 기도 원력을 한마음으로 모아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고 미래 천년을 열어 갈 것을 기원했다.

"석굴암 부처님과 동시대에 조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K-문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종천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과거 천년을 딛고 미래 천년을 품는 거룩한 불사"라면서 이는 "불교계를 넘어서 우리 국민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며 나라의 미래를 희망으로 꿈꾸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과거천년 미래천년 '천년을 세우다' 기도를 통해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윤달 3.7일 특별기도 동참 대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불자와 국민이 열암곡 기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기도 도감 본오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과거천년 미래천년을 일으켜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질 불사 원력을 모으겠다는 서원을 부처님께 알렸다. 본오 스님은 "오늘부터 21일간 진행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희망의 미래천년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참여 대중들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특히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한 뒤 5일 만에 기도 정진에 참여하는 환풍 스님과 본오 스님의 원력은 남달랐다.

환풍 스님은 "아직 컨디션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마애부처님이 바로 모셔지는 그날까지 정진하고 기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본오 스님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걷는 순례를 다녀왔다. 1167km의 대장정에서 느낀 환희와 기쁨이 이 기도를 통해 이어지고 불자들의 원력이 한마음으로 결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기도는 입재식 후 21일간 매일 오전 11시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진행되며, 동국대 WISE캠퍼스 선림원 학감 선우 스님과 환풍 스님이 기도를 집전한다. 이 시간에는 전국 불자들이 동참해 마애불 입불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